

청소년의 우울과 지각된 부모 지지, 행동적 통제 및 심리적 통제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자아통제력 및 자아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최정아* · 이혜은**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지지, 행동적 통제, 심리적 통제, 그리고 청소년의 자아 통제력 및 자아유능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우울에 대한 3개의 부모 양육행동 차원(지지, 행동적 통제, 심리적 통제)의 직접효과와 자아통제력 및 자아유능감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설정한 연구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이 모형의 유용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중2패널 3차년도 자료(2005년) 중 조사에 성공한 3,12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아통제력과 자아유능감이 행동적 통제와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지지는 자아유능감을 통하여, 그리고 심리적 통제는 자아통제력을 통하여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우울에 대한 행동적 통제 및 심리적 통제의 직접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청소년 우울의 예방 및 개입에 있어서의 자아통제력과 자아유능감 강화의 필요성과 부모 양육행동의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주제어 : 청소년 우울, 부모 양육행동, 부모 지지, 행동적 통제, 심리적 통제,
자아통제력, 자아유능감, 구조방정식

* 제1저자(교신저자), 연세대학교, ah1124@hanmail.net

** 연세대학교

I. 서 론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신체적, 대인적, 인지적, 환경적 변화 및 스트레스의 증가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 시기이므로(Schonert-Reichl & Muller, 1996),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Sawyer et al., 2000).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가장 흔한 정신장애 중 하나가 바로 우울증인데, 유아 및 아동기의 우울증은 흔하게 나타나지 않는 반면, 청소년기의 우울증 발병률은 성인기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Hamff, 2004).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우울증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 도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청소년 우울 증상 유병률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 중고등학생 1,972명 중 38.9%가 가능한 우울 증상(probable depressive symptoms)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명확한 우울 증상(definite depression symptoms)을 보이는 경우도 2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청소년들이 우울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조성진 외, 2001).

청소년기 우울은 심리사회적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즉각적인 영향 뿐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청소년기 우울은 학업 문제, 사회적 문제, 비행, 약물 남용, 섭식장애, 자살 등 다양한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성인기의 문제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Lehman, 1985; Kandel & Davies, 1986). 이러한 청소년기 우울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으로서 가장 밀접하며 중요한 부모 요인과 청소년 개인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독립과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므로(남상인·구자경, 1998),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모는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 및 행동은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과 성격, 동기 및 행동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육행동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양육행동 차원들의 조합을 통해 양육행동 유형을 구분함으로써 개별 양육행동의 효과를 검증하기 어

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육행동의 주요 차원인 부모 지지(parental support), 행동적 통제(behavioral control), 심리적 통제(psychological control)가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개별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양육행동 차원들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뿐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 역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간접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청소년 개인특성으로서 자아통제력(self-control)과 자아유능감(self-competence)에 주목하였다. 이 두 가지 개인 특성은 모두 청소년의 다양한 문제행동 및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으며(Gottfredson & Hirsch, 1990; Harter, 1999), 부모의 양육행동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개인적 특성으로 알려져 있다(Abraham & Christopherson, 1984; Finkenauer et al., 2005). 자아통제력의 경우, 개념 상 정서적인 측면과도 높은 상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Tangney et al., 2004),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비행이나 공격성 등 외현화 문제와의 관련성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 의해 자아통제력이 행동 문제 뿐 아니라 정서적 문제와도 관련됨이 밝혀져(Baumeister et al., 1994; Tangney et al., 2004), 우울과 같은 내현적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개인적 특성으로서의 가능성이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아유능감 역시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주는 긍정적인 정신건강 차원과 관련되는 개념으로서, 선행 연구들에 의해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와의 관련성이 밝혀진 바 있어(Ohannessian et al., 1999)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인 자아통제력 및 자아유능감의 발달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Abraham & Christopherson, 1984; Finkenauer et al., 2005), 부모양육행동과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환경요인으로서 부모 양육행동의 주요 차원들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청소년의 개인 특성인 자아통제력 및 자아유능감을 통하여 미치는 간접효과를 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우울에 대한 예방 및 개입 전략을 세우는데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아유능감이나 자기지각(self-perception)과 같은 개인 특성과 우울이 나타나는 패턴 및 부모 양육행동과 적응 간

의 관계가 남녀 청소년에게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Demo et al., 1987; Wigfield & Eccles, 1994)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구성한 연구모형이 남녀 청소년의 우울을 모두 적합하게 설명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양육행동 차원과 우울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성격 발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에 우울의 원인론적 취약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 왔다(김보경·민병배, 2006). 양육행동과 관련된 일련의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 스타일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의 특성과의 관련성을 밝혀왔다(Maccoby & Martin, 1983; Baumrind, 1996).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이 가지는 한계점에 관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즉, 양육행동 차원들이 한 유형으로 합쳐짐으로써 각각의 차원들이 가지는 개별적인 영향력을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Barber et al., 1994). 이러한 한계를 고려한 이후 연구들에서는 앞서 언급된 유형별 접근방법의 대안으로서 양육행동의 주요 차원들을 개별적인 구성 개념으로 구분하되 각 차원들을 동시에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Barber & Olson, 1997; Herman et al., 1997). 이러한 방법은 다른 양육행동 차원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맥락에서 각 양육행동 차원이 가지는 개별적인 영향력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뿐만 아니라 특정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특정 행동 또는 특성 간의 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에서 언급된 양육행동의 주요 차원으로는 부모의 지지, 행동적 통제, 심리적 통제가 있으며(Bean et al., 2003), 그동안 관련 연구들을 통하여 부모의 지지 및 통제가 청소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져 왔다(Lamborn & Felbab, 2003). 부모의 지지는 부모가 자녀에게 표현하는 수용

또는 따뜻함의 수준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이러한 부모의 지지는 높은 학업 성적 및 자아존중감, 낮은 우울감 등 청소년의 적응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06). 이렇게 부모의 지지는 아동 및 청소년의 정상적인 발달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 것으로 간주되어온 반면,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과 부모 통제와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일관된 결과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 통제는 효과적인 양육의 한 측면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부정적이고 지배적인 양육의 지표로 다루어지기도 하였다(Peterson & Rollins, 1987). 이러한 통제와 관련된 개념상의 불명확성과 일관되지 않은 연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일부 연구자들은 통제를 두 가지 형태, 즉, 행동적 통제와 심리적 통제로 구분하였다(Gray & Steinberg, 1999; Barber, 2002). 행동적 통제는 가족 또는 사회의 규범을 따르도록 자녀의 행동을 규제하는 양육행동을 의미하는데(Baumrind, 2005), 이러한 행동적 통제의 기본적 구성요소는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친구가 누구인지 등에 관해 알고 이에 대해 지도하는 감독(monitoring)이라고 할 수 있다(Patterson et al., 1992; Brown et al., 1993). 심리적 통제는 자녀를 어린이가 취급하거나 소유물로 생각하여 행동을 제약하며 자녀의 죄책감을 유발시키거나 애정을 철회한다든지 또는 자녀의 욕구를 무시하거나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Barber & Harmon, 2002), 관련 연구들에서 침해성, 요구성, 적대성, 정서적 조정, 의사소통의 제한 등의 특성으로 개념화되었다(Pettit et al., 2001). 그런데 이러한 행동적 통제와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발달에 있어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모의 감독과 같은 행동적 통제는 자신의 자녀가 부모 및 사회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규범적인 목적을 달성하도록 사회화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역할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으로서(Steinberg, 1990),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제공해줌으로써 긍정적인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심리적 통제는 자녀로 하여금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심의 발달을 저해하게 된다(Pettit et al., 2001). 초기 청소년기는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시기이며(Steinberg, 1990),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청소년이 부모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독립적인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죄책감을 야기한다든지, 애정을 철회하는 것과 같은 심리적 통제는 이러한 심리적 자율성의 발달과 건강한 정체감 형성을 저해하게 된다(Steinberg, 1990). 이렇게 행동적 통제와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있어 다른 영향을 미치

는 이유는 통제를 사용하게 되는 부모의 욕구 및 관심의 초점에 있어서의 차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행동적 통제는 부모의 양육철학으로부터 비롯됨으로써 그 관심의 초점이 아동의 행동에 있는 반면, 심리적 통제는 부모 자신의 심리내적인 어려움에서 초래된다는 것이다(Pettit et al., 2001). 즉, 심리적 통제는 부모 자신의 발달과정에서 유래되어 부모-자녀 관계에서 자신의 “심리적” 힘을 보호하고자 하는 부모의 욕구와 관련된다는 것이다(Pettit et al., 2001). 따라서 행동적 통제는 청소년의 다양한 발달 및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심리적 통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선행 연구들에 의해서도 밝혀져 왔다(Baumrind, 2005). 먼저,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감독과 청소년의 다양한 적응 간에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부모감독은 낮은 수준의 반사회적 행동 및 성 행동, 높은 수준의 학교 적응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Jacobson & Crockett, 2000),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자율성과 자기신뢰(self-confidence)를 저해하며 개인적인 고통(distress)과 부적절함(inadequacy)을 강화하는 것으로 밝혀졌다(Steinberg, 1990). 바버(Barber, B. K.) 등(1994)은 자신들의 연구를 통하여 자녀에 대한 부모의 행동 통제 결여가 내현화 문제와 관련된다는 것을 밝혀내었으며, 페티(Pettit, G. S.) 등(2001)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여자 청소년 및 청소년기 이전의 우울 및 불안 수준이 높았던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이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소년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모의 양육행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양육행동의 개별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부모 양육행동의 주요 차원인 부모 지지, 행동적 통제, 심리적 통제에 초점을 두어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2. 자아통제력과 우울

자아통제력이란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충동을 억제하거나 행동, 사고 및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한다(Tangney et al., 2004). 이러한 자아통제력은 모든 발달단계에서의 심리사회적 적응 및 문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아통제 수준이 높은 아동들은 정서적 흥분 수준이 낮으며(Fabes et al.,

1999), 자아통제 수준이 높은 성인일수록 정서적 문제를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ramzow et al., 2000). 반면, 낮은 자아통제 수준은 공격성, 비행, 폭력 및 범죄행동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Avakame, 1998).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들은 자아통제력이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정서 및 행동 문제와 일관되게 관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아통제력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통제 소재(locus of control)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가 어디로부터(내적 또는 외적) 기인하는 것인지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Bandura, 1978).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외적 통제 소재는 낮은 학업 성취, 우울 및 비행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내적 통제 소재는 학업 성취, 긍정적인 정서 상태, 낮은 비행율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Hagborg et al., 1991; Van-Boxtel & Monks, 1992).

이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자아통제력은 청소년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발달 및 적응과 관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동 및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비행과 자아통제력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많이 수행되어 온 반면(Gottfredson & Hirsch, 1990; 고정자, 2005; 정소희, 2007), 우울 등 정서적 문제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자아통제력은 행동 뿐 아니라 사고 및 정서 등과도 관련되는 개념이며,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정서적 문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Baumeister et al., 1994; Tangney et al., 2004), 청소년기의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자아통제력과 적응 간의 관계가 선형인지 비선형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선형관계를 주장하는 이들은 자아통제 수준이 증가할수록 적응 수준 역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Muraven & Baumeister, 2000). 반면, 자아통제 수준이 낮은 것뿐만 아니라 너무 높은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즉, 이들 간의 관계가 비선형(curvilinear)이라는 주장 역시 제기되었다(Kremen & Block, 1998). 하지만 이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한 연구에 의하면 자아통제 수준과 행동 문제 및 우울 간의 관계는 비선형보다 선형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 밝혀졌다(Finkenauer et al., 2005).

3. 자아유능감(self-competence)과 우울

일반적으로 유능감은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주는 긍정적인 정신건강 차원으로 간주되며, 자아유능감은 이와 관련된 개념으로써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상(image)을 의미한다. 하터(Harter, S.)와 파이크(Pike, R.)(1984)에 의하면 자아유능감은 스스로 자신이 지녔다고 생각하는 특성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이나 판단, 가치감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자신감을 의미한다.

자아유능감은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 과업 수행과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아동이 지각한 자신의 유능감이 동기 수준, 도전이 되는 상황에 대한 반응,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의 정서 상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Harter, 1999). 이러한 자아유능감이 취약한 경우는 높은 수준의 아동기 우울과 관련되는 반면, 긍정적인 자아유능감 지각은 우울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Hammen & Zupan, 1984). 또한 오하네시안(Ohannessian, C. M.) 등(1999)의 연구에 의하면 남, 여 청소년 모두에게서 자아유능감과 우울이 부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기의 자아유능감의 중요성은 다른 발달단계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인지능력의 발달과 관련된다. 청소년기에는 내성(introspection)이 촉진되어 자신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자아유능감이 저하되는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Wigfield & Eccles, 1994).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기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서 자아유능감의 역할을 검토함과 동시에 이러한 자아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양육행동, 자아통제력, 자아유능감과 우울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아통제력 및 자아유능감 등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수준의 수용과 엄격한 통제 및 감독, 그리고 심리적 통제를 사용하지 않는 적응적인 부모양육행동은 자아통제능력이 키워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게 된다. 핁케너(Finkenauer, C.) 등(2005)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수용적 양육행동은 자아통제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심리적 통제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엄격한 통제(strict control)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아유능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자아유능감은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특히 가족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apini & Roggman, 1992). 아브라함(Abraham, K. G.)과 크리스토퍼슨(Christopherson, V. A.)(1984)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지지와 청소년이 지각한 유능감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다른 연구들에 의하면 지지적인 양육 행동이나 행동적 통제는 자아존중감에 긍정정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강제적이거나 심리적인 통제를 하는 양육행동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arber et al.,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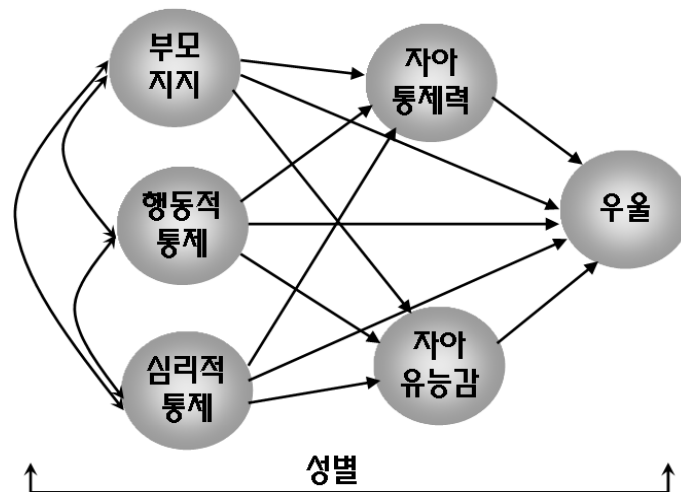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육행동의 주요 차원 중 부모의 지지와 행동적 통제는 청소년의 자아통제력 및 자아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심리적 통제는 자아통제력 및 자아유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청소년의 발달 및 심리사회적 적응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자아통제력 및 자아유능감은 모두 우울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됨으로써 부모 양육행동과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렇게 개별적인 부모 양육행동이 자아통제력과 자아유능감을 통하여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다룬 실증적 연구는 없었다¹⁾.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육행동의 주요 차원인 부모 지지, 행동적 통제, 그리고 심리적 통제가 자아통제력과 자아유능감이라고 하는 청소년의 개인 특성을 통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1) 단지, 이러한 변수들 중 일부, 예를 들어, 부모의 수용적 양육행동이 자아통제를 통하여 행동 문제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거나(Finkenauer et al., 2005), 부모의 감독이 자아통제력을 통하여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고정자, 2005) 등이 있을 뿐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의 관계를 부모지지, 행동적 통제 및 심리적 통제의 직접효과와 자아통제력 및 자아유능감을 통한 간접효과로 설정하여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부모양육행동의 차원인 부모지지, 행동적 통제, 심리적 통제를 독립변수, 우울을 종속변수로 구성하고 자아통제력과 자아유능감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그 관계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그림 1 참조).



[그림 1] 연구 모형

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발달 및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부모 지지 및 행동적 통제는 우울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자아통제력과 자아유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자율성 발달 및 건강한 정체감 형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심리적 통제는 우울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아통제력 및 자아유능감을 감소시킴으로써 우울을 증가시킬 것으로 가정하였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구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청소년패널 데이터 중 2005년에 조사된 중2 패널 3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중2 패널의 조사 모집단은 2003년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sampling frame)로 사용하여 층화다단계집락 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 방법으로 추출된 전국(제주도 제외)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이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2005년 중2 패널 3차년도의 조사 대상은 2003년 중2 패널 1차 년도에 구축된 3,449명이며, 이 가운데 조사에 성공한 3,125명(90.6%의 성공률)의 데이터가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 및 측정도구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역시 함께 제시되어 있다.

<표 1> 변수 및 측정도구

구분	변수명	변수 및 측정 도구 설명 ²⁾	Cronbach's α
종속 변수	우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낮은 수준의 관심과 흥미', '걱정', '외로움', '슬픔', '자살 충동'의 5문항을 사용하였다.	.78
매개 변수	자아 통제력	본 연구에서는 '시험보다 재미있는 일 우선', '힘든 일 포기', '위험한 활동 즐김', '타인 괴롭히는 일 즐김', '화가 나면 참지 못함', '숙제를 제때 해가지 않음' 등을 묻는 6문항으로 자아통제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모든 문항을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69
	자아 유능감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결정 신뢰',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성', '자신의 능력 인정' 등을 묻는 4문항으로 자아유능감을 측정하였다.	.80
독립 변수	부모 지지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사랑과 애정', '부모와 자녀의 상호 간의 이해' 정도를 묻는 3문항으로 부모지지를 측정하였다.	.81
	행동적 통제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외출 장소', '외출 동반자', '외출 시 활동', '귀가 시간' 등을 아는 정도를 묻는 4문항으로 행동적 통제를 측정하였다.	.89
	심리적 통제	본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의 심한 욕설', '부모와 의견충돌로 인한 스트레스', '지나친 부모 간섭으로 인한 스트레스', '부모와 대화가 통하지 않아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를 묻는 4문항으로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였다.	.81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구성된 연구 모형은 AMOS 7.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의 추정방법으로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였다³⁾. 본 연구에서의 주요 변수의 결측치 비율을 검토한 결과, 모두 0.2% 이하였으며, 결측 형태의 체계성 검토를 위해 결측치가 포함된 경우와 제외된 경우에 대하여 t-test를 실시하였으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Aroian 공식을 이용하여 자아통제력 및 자아유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성별에 따라서 각 잠재변수들 간의 경로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외에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SPSS 15.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2) 본 연구에서의 모든 측정 문항은 리커트식 5점 평정척도로 측정하였다.

3) FIML은 변수의 결측치가 무선적으로 발생했거나(missing completely at random: MCAR) 결측 여부가 자료 내의 다른 변수의 값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missing at random: MAR)에 목록별 결측치(listwise missing)나 대응별 결측치(pairwise missing)와 같은 전통적인 결측치 처리방법보다 정확하게 미지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홍세희, 2007).

IV. 분석결과

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분석 대상 청소년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이 50.3%(1,572명), 여자 청소년이 49.7%(1,55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구성의 경우, 전체 청소년의 94.6%에 해당하는 2,915명이 양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4.3%가 양친과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명을 제외한 98.8%의 청소년이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분석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N=3,125)

구 분		성별 빈도(%) ⁴⁾		
		남(N=1,572)	여(N=1,553)	계(N=3,125)
연령	16세	333(21.2)	331(21.3)	664(21.2)
	17세	1,235(78.6)	1,221(78.6)	2,456(78.6)
	18세 이상	4(0.2)	1(0.1)	5(0.2)
가족 구성	양친 모두 계심	1,467(94.8)	1,448(94.4)	2,915(94.6)
	아버지만 계심	23(1.5)	23(1.5)	46(1.5)
	어머니만 계심	54(3.5)	58(3.8)	112(3.6)
	양친 모두 부재	3(0.2)	5(0.3)	8(0.3)
부모 동거	양친 동거	1,385(94.4)	1,363(94.1)	2,748(94.3)
	부 동거	20(1.4)	17(1.2)	37(1.3)
	모 동거	35(2.4)	38(2.6)	73(2.5)
	양친과 모두 비동거	27(1.8)	30(2.1)	57(2.0)
학생 여부	현재 학교에 다님	1,552(98.7)	1,536(98.9)	3,088(98.8)
	현재 학교에 안다님	20(1.3)	17(1.1)	37(1.2)

4) 결측값으로 인해 각 변수별 분석에 사용된 사례 수 및 전체 사례 수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

2. 주요변수의 기초통계결과

본 연구의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분석으로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와 표준편차 및 평균을 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상분포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

<표 3> 주요구성요인 특성(남학생 N=1,572, 여학생 N=1,553)

잠재 변수	측정 변수	남				여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부모 지지	부모와 많은 시간 공유 (S1)	3.23	.869	-.156	-.088	3.41	.871	-.384	-.031
	부모의 사랑과 애정 (S2)	3.68	.834	-.413	.252	3.75	.831	-.446	.210
	부모의 이해 (S3)	3.43	.869	-.296	.002	3.47	.883	-.380	.049
행동적 통제	외출 장소 인지 (B1)	3.36	.967	-.256	-.505	3.68	.912	-.583	.007
	외출 동반자 인지 (B2)	3.25	.988	-.171	-.597	3.58	.937	-.467	-.241
	외출 시 활동 인지 (B3)	3.21	.984	-.129	-.536	3.44	.956	-.268	-.522
	외출 시 귀가 시간 인지 (BC4)	3.11	.989	-.066	-.626	3.39	.921	-.248	-.389
심리적 통제	부모로부터의 심한 욕설 (P1)	1.66	.865	1.337	1.527	1.57	.805	1.531	2.243
	부모와의 의견충돌 스트레스 (P2)	2.74	.971	.114	-.425	2.69	.921	.230	-.311
	부모의 간섭으로 스트레스 (P3)	2.72	1.022	.225	-.485	2.58	.963	.395	-.316
	부모와 대화 안통해서 스트레스(P4)	2.57	.983	.303	-.331	2.52	.947	.377	-.270
자아 통제력	시험보다 재미있는 일 우선 (C1)	3.00	1.184	.074	-.996	3.10	1.163	.040	1.085
	힘들고 복잡한 일 포기 (C2)	3.46	.939	-.296	-.357	3.24	.928	-.176	-.604
	위험한 활동 즐김 (C3)	3.39	1.063	-.237	-.638	3.54	1.017	-.345	-.651
	타인 괴롭히는 일 즐김 (C4)	3.62	1.026	-.468	-.288	3.69	1.010	-.514	-.259
	화가 나면 통제 안됨 (C5)	3.16	1.139	-.153	-.761	3.30	1.085	-.239	-.681
	학교 숙제 잘 하지 않음 (C6)	3.28	1.107	-.151	-.749	3.40	1.052	-.260	-.617
자아 유능감	자신의 결정 신뢰 (CO 1)	3.56	.819	-.375	.154	3.42	.736	-.243	-.157
	문제 스스로 해결 (CO 2)	3.59	.803	-.328	.200	3.24	.928	-.270	-.073
	자신의 삶 주관 (CO 3)	3.57	.829	-.200	.049	3.51	.779	-.151	-.020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CO 4)	3.25	.872	-.095	-.041	3.20	.838	-.078	-.177
우울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 없음 (D1)	2.34	.899	.566	.251	2.24	.880	.500	.297
	모든 일에 걱정 많음 (D2)	2.96	1.038	-.083	-.578	3.14	1.007	-.210	-.548
	이유 없이 외로움 (D3)	2.65	1.078	.248	-.580	2.99	1.065	-.130	-.747
	이유 없이 슬픔 (D4)	2.57	1.083	.336	-.571	3.00	1.083	-.103	-.764
	이유 없이 죽고 싶음 (D5)	2.17	1.041	.672	-.086	2.25	1.087	.656	-.246

5) 왜도가 2보다 크거나 첨도가 7보다 큰 경우(일반적인 통계 패키지에서는 3을 뺀 4보다 큰 경우)가 아니면 추정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West et al., 1995).

<표 4>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남학생 N=1,572, 여학생 N=1,553)

	S1	S2	S3	B1	B2	B3	B4	P1	P2	P3	P4	C1	C2	C3	C4	C5	C6	C01	C02	C03	C04	D1	D2	D3	D4	D5
S1	.588**																									
S2	.518**	.698**																								
S3	.523**	.622**	.426**																							
B1	.313**	.359**	.341**	.660**																						
B2	.274**	.299**	.284**	.660**	.701**																					
B3	.294**	.313**	.319**	.692**	.701**	.544**																				
B4	.263**	.251**	.287**	.529**	.544**	.589**	.139**																			
P1	.250**	.293**	.275**	.178**	.139**	.122**	.076**	.239**																		
P2	.146**	.189**	.283**	.112**	.084**	.115**	.082**	.239**	.686**																	
P3	.180**	.190**	.203**	.134**	.124**	.150**	.123**	.251**	.694**	.693**																
P4	.223**	.267**	.342**	.190**	.144**	.143**	.136**	.288**	.653**	.709**	.636**															
C1	.130**	.104**	.113**	.137**	.107**	.117**	.106**	.067**	.074**	.098**	.078**	.389**														
C2	.132**	.138**	.147**	.123**	.134**	.094**	.113**	.095**	.144**	.144**	.160**	.389**	.123**													
C3	.071**	.047	.070**	.058**	.014	.047	.043	.104**	.157**	.165**	.171**	.281**	.255**	.252**												
C4	.064*	.063*	.086**	.127**	.066**	.098**	.059*	.157**	.143**	.140**	.157**	.281**	.255**	.252**	.345**											
C5	.061*	.024	.039	.004	.017	.016	.037	.107**	.173**	.166**	.116**	.213**	.213**	.252**	.306**	.289**										
C6	.127**	.091**	.116**	.115**	.100**	.121**	.137**	.148**	.116**	.113**	.124**	.354**	.283**	.261**	.306**	.263**	.248**									
C01	.144**	.203**	.167**	.128**	.172**	.156**	.143**	.129**	.140**	.110**	.124**	.354**	.283**	.261**	.306**	.263**	.248**	.121**								
C02	.139**	.233**	.207**	.144**	.190**	.151**	.133**	.141**	.141**	.093**	.100**	.011	.222**	.115**	.105**	.099	.017	.095**	.666**							
C03	.111**	.195**	.189**	.116**	.132**	.151**	.120**	.124**	.140**	.183**	.075**	.006	.157**	.081**	.105**	.088	.012	.095**	.666**	.721**						
C04	.194**	.216**	.217**	.162**	.111**	.149**	.152**	.140**	.183**	.067**	.072**	.052	.161**	.080**	.105**	.088	.012	.113**	.377**	.355**	.342**					
D1	.161**	.165**	.181**	.115**	.089**	.088**	.053*	.151**	.096**	.171**	.229**	.111**	.198**	.015	.085**	.065**	.081**	.168**	.187**	.156**	.128**	.163**				
D2	.021	.002	.067**	.013	.020	.019	.004	.099**	.169**	.164**	.155**	.047	.139**	.016	.043	.044	.062	.080**	.048	.064*	.091**	.243**	.210**	.233**	.226**	.275**
D3	.066**	.048	.117**	.013	.030	.040	.005	.165**	.246**	.221**	.233**	.078**	.151**	.117**	.132**	.074**	.103**	.118**	.102**	.077**	.059**	.286**	.495**	.480**	.452**	.273**
D4	.051*	.056*	.106**	.021	.011	.011	.005	.132**	.245**	.226**	.229**	.099**	.141**	.138**	.155**	.103**	.067**	.087**	.053*	.037	.020	.278**	.383**	.783**	.794**	.472**
D5	.130**	.166**	.164**	.081**	.048	.057	.009	.196**	.265**	.253**	.297**	.132**	.180**	.150**	.187**	.117**	.114**	.135**	.123**	.088**	.069**	.314**	.273**	.521**	.507**	.507**

* $p<.05$, ** $p<.01$

주. 대각선 왼쪽 아래쪽은 남자 청소년, 오른쪽 위는 여자청소년 상관값임.

3. 모형검증

1) 측정모형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에는 잠재변수를 규정하기 위한 측정모형의 개발과 잠재변수들 간의 관계 또는 구조방정식의 설정이 모두 포함되며, 측정모형은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의 관계를 규정해주는 것이다(Schumacker & Lomax, 2004).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하여 측정모형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TLI(Tucker-Lewis Index) .914, CFI(Comparative Fit Index) .931, RMSEA

<표 5> 측정모형 분석결과(N=3,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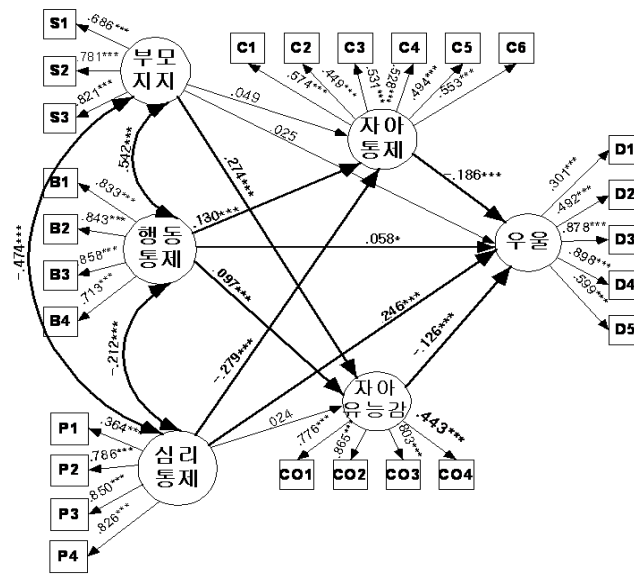
잠재변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t
부모지지	S1 ← 부모지지	1.000	.686		
	S2 ← 부모지지	1.085***	.781	.030	36.182
	S3 ← 부모지지	1.199***	.821	.032	36.996
행동적 통제	B1 ← 행동적 통제	1.000	.833		
	B2 ← 행동적 통제	1.036***	.843	.019	54.528
	B3 ← 행동적 통제	1.054***	.858	.019	55.655
	B4 ← 행동적 통제	.867***	.713	.020	43.561
심리적 통제	P1 ← 심리적 통제	1.000	.364		
	P2 ← 심리적 통제	2.446***	.786	.126	19.339
	P3 ← 심리적 통제	2.779***	.850	.142	19.602
	P4 ← 심리적 통제	2.621***	.826	.134	19.521
자아통제력	C1 ← 자아통제력	1.000	.574		
	C2 ← 자아통제력	.629***	.451	.034	18.299
	C3 ← 자아통제력	.819***	.530	.040	20.399
	C4 ← 자아통제력	.796***	.527	.039	20.335
	C5 ← 자아통제력	.815***	.493	.042	19.463
	C6 ← 자아통제력	.888***	.554	.042	20.955
자아유능감	CO1 ← 자아유능감	1.000	.776		
	CO2 ← 자아유능감	1.111***	.865	.024	46.460
	CO3 ← 자아유능감	1.049***	.803	.024	44.516
	CO4 ← 자아유능감	.616***	.443	.026	23.626
우울	D1 ← 우울	1.000	.301		
	D2 ← 우울	1.970***	.492	.136	14.533
	D3 ← 우울	3.719***	.878	.228	16.337
	D4 ← 우울	3.868***	.898	.237	16.350
	D5 ← 우울	2.487***	.599	.162	15.331
$\chi^2(df, p)=2458.980(284; .000)$ TLI=.914 CFI=.931 RMSEA(CI)=.050(.048, .051)					

* p<.05, ** p<.01, *** p<.001

(Root-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050(90% 신뢰구간 : .048-.051)으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었다⁶⁾. 또한 부모 지지, 행동적 통제, 심리적 통제, 자아통제력, 자아유능감, 우울을 나타내는 각각의 측정변수들이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2) 구조모형분석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 연구들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부모 지지, 행동적 통제, 심리적 통제, 자아통제력, 자아유능감 및 우울의 관계구조를 [그림 2와 같이 설정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그 관계구조를 검증하였다(그림 2 참조).



χ^2 (df: p)=2459.185(285; .000) TLI =.915 CFI =.931 $RMSEA(CI)$ =.049(.048, .051)

*p<.05, **p<.01, ***p<.001. 오차항 생략. 표준화 계수.

[그림 2] 구조모형

6) TLI와 CFI의 경우, .9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 RMSEA의 경우, .05 미만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로 해석할 수 있다(Browne & Cudeck, 1993 ; 홍세희, 2000 재인용).

본 연구에서의 구조모형에 대한 χ^2 검증 결과는 기각되었지만, χ^2 검증은 평가설 내용이 너무 엄격하고(MacCallum 외, 1996; 홍세희, 2000 재인용) χ^2 값에는 모형 오류뿐 아니라 표본크기의 영향도 반영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홍세희,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LI, CFI, RMSEA를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비교적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부모 지지에서 자아유능감, 행동적 통제에서 자아통제력 및 자아유능감, 그리고 심리적 통제에서 자아통제력으로의 경로가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부모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통제력이 높아지며, 행동적 통제 정도가 높을수록 자아통제력

과 자아유능감 수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심리적 통제는 자아통제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통제력과 자아유능감 모두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p < .001$), 행동적 통제와 심리적 통제는 직접적으로 우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매개효과 검증

앞서 분석된 구조모형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간접 경로에서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Aroian 공식⁷⁾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 지지에서 우울, 그리고 행동적 통제에서 우울 간의 경로에서 자아유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통제 및 행동적 통제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아통제력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 $Z_{ab} = \frac{ab}{\sqrt{SE_a^2 SE_b^2 + b^2 SE_a^2 + a^2 SE_b^2}}$

<표 6> 매개효과 검증 결과

경로	Z	유의도(p < .05)
부모 지지 → 자아유능감 → 우울	-4.961	유의
행동적 통제 → 자아통제력 → 우울	-3.861	유의
행동적 통제 → 자아유능감 → 우울	-3.289	유의
심리적 통제 → 자아통제력 → 우울	5.829	유의

4)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구조모형에서의 잠재변수 간의 경로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다집단 분석은 집단을 나누어 동시에 투입하는 다중 집단 인과모형 분석으로, 두 집단에 대하여 경로 간 동일화제약(equality constraint)을 가한 다음 기저모형(baseline model)과 제약모형(constraint model) 간의 χ^2 차이 검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이다(홍세희, 2007). 본 연구에서는 다집단 분석을 하기 위하여 기저모형(baseline model)에 대한 형태 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검증, 측정 동일성(metric invariance) 검증, 구조동일성(structural invariance) 검증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였다. 다집단 분석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기저모형)이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의 경우 적합한지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 성별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chi^2(df; p)$	TLI	CFI	RMSEA(CI)
남	1246.149(285;.000)	.920	.935	.046(.044, .049)
여	1622.409(285;.000)	.901	.920	.055(.052, .058)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녀 청소년의 기저 모형이 모두 적합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⁸⁾인 것으로 나타나 형태동일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측정

8) 여자 청소년의 경우 RMSEA가 .05 이상이지만 .08 미만이므로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에 해당된다(Browne & Cudeck, 1993 ; 홍세희, 2000 재인용).

모형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동일성은 다집단 분석에서 기본적으로 만족시켜야 할 조건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잠재변수에서 각 측정변수로의 모든 요인계수가 남녀 집단 간에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완전측정동일성모형과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의 χ^2 차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8> 다집단(성별) 동일성 검증에 대한 적합도 지수

모 형	χ^2	df	TLI	RMSEA(CI)	$\Delta\chi^2$	Δdf	ΔTLI	$\Delta RMSEA$	결과
기저모형	2868.559	570	.910	.036(.035,.037)					
측정동일성모형	2891.683	590	.913	.035(.034,.037)	23.124	20	.003	-.001	채택
구조동일성모형	2903.974	601	.914	.035(.034,.036)	12.291	11	.001	.000	채택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저모형과 완전측정동일성모형 간의 χ^2 차이는 23.124, 자유도 차이는 20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완전측정동일성 가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모든 측정변수의 요인계수 추정치가 남녀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며,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었으므로 구조동일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집단 분석의 마지막 단계로 구조모형에서 성별에 따라 잠재변수 간 경로계수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측정동일성모형과 구조동일성모형의 χ^2 차이는 12.291로 이는 자유도 차이 1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p < .05$), 구조동일성 가정을 만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된 구조모형의 전체 경로에 있어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행동 차원과 청소년 개인 특성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양육행동의 주요 차원인 부모 지지, 행동적 통제, 심리적 통제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청소년 개인 특성인 자아통제력과 자아유능감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여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체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와 각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자아통제력 및 자아유능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그리고 연구 모형에서의 각 변인들 간의 경로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부모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유능감이 증가하고, 자아유능감이 높을수록 우울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지지적일수록 자아존중감 또는 유능감 등의 개인 특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Abraham & Christopherson, 1984; Ohannessain et al., 1998; 이송이, 2006; 김원경 외, 2006), 그리고 유능감이 높을수록 우울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Hammen & Zupan, 1984; Ohannessain et al., 1999)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간의 관계에서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우울에 대한 부모 지지의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낮은 우울감과 관련되는 것으로 밝혀진 부모의 지지가 자아유능감이라고 하는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을 강화함으로써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우울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부모의 지지적 행동이 자아유능감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각된 부모의 행동적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통제력 및 자아유능감 수준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시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감독 또는 행동적 통제가 청소년의 자아통제력 및 자기효능감 등 긍정적 특성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선행 연구들(Garber et al., 1997; 고정자, 2005; 김원경 외, 2006),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의 개인 특성이 우울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Ohannessain et al., 1999; Finkenauer et al., 2005; 고정자, 2005)과 일치하고 있다. 또한 자아통제력과 자아유능감 모두 행동적 통제와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개인 특성이 우울을 감소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임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인 영향력과는 달리 행동적 통제가 직접적으로는 우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행동적 통제가 자아통제력이나 자아유능감을 증가시킴으로써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울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독립 및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 상 부모의 통제는 청소년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자아통제력이나 유능감 등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행동적 통제와 우울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 매우 제한적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직접적으로 우울을 증가시키며, 간접적으로는 자아통제력 감소를 통하여 우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자아통제에는 부적인 영향을, 그리고 우울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Finkenauer et al., 2005). 침해성, 요구성, 적대성, 정서적 조정, 의사소통 제한 등의 특성을 지니는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자율성 및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 결과는 건강한 양육을 위한 목적에서라기보다는 부모의 개인적인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녀를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자아통제력이라고 하는 개인적 특성의 발달을 저해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울이라고 하는 정서적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음을 나타냄으로써 심리적 통제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및 우울에 대한 양육행동 차원들의 영향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즉, 부모 지지와 행동적 통제는 자아통제력과(또는) 자아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심리적 통제는 자아통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 행동의 각 차원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이들 자아통제력과 자아유능감은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들은 청소년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을 계획함에 있어 부모 양육행동과 관련된 개입이 고려되어야 함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 모형에서 구성된 변수들 간의 경로에 있어서 남녀 청소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이나 자아유능감 또는 자기 지각 등 개인 특성 및 부모 양육행동과 적응 간의 관계가 남녀 청소년에게 있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일부 연구들이 있으나(Demo et al., 1987; Wigfield & Eccles, 1994), 이들 연구들은 개별 변수 값의 차이를 검증하거나 일부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의 차이만을 확인했으므로 본 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를 제시함에 있어서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청소년은 대부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므로 본 연구 결과를 모든 연령의 청소년에게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증된 모형이 다른 연령의 청소년들에게서도 적합한 설명력을 가지는지 대상을 확대하여 추후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의 부모 양육행동은 청소년이 지각한 바를 측정한 것이므로 실제 부모 양육행동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심리적 적응에 있어 실제 부모의 양육행동보다는 지각된 양육행동이 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으나(Parker, 1983; 김보경·민병배, 2006 재인용) 우리나라 청소년의 적응에 있어 실제 양육행동과 지각된 양육행동이 가지는 관련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가장 밀접한 환경으로서 부모 요인만을 포함하였으나 청소년기 또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우울과 관련된 또래 요인의 영향을 확인하는 것 역시 필요할 것이다.

비록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의 및 함의를 제시해주고 있다. 첫째, 부모 양육행동의 주요 차원을 분리하되 함께 검증함으로써 개별적인 영향력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부모 양육행동의 방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청소년기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부모와의 관계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으므로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부모 교육 또는 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프로그램의 내용에 청소년의 우울

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 뿐 아니라 청소년의 건강한 개인 특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과 개인 요인을 통합적인 맥락에서 검증하고 이들 간의 매개효과를 밝혀냄으로써 청소년 우울 예방 및 개입에 있어 강화되어야 할 청소년 개인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청소년의 자아통제력 및 자아유능감이 우울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밝혀졌으므로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에 이러한 청소년의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정자(2005). 부모의 감독정도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43권 제2호, pp. 1-17.
- 김보경·민병배(2006). 청소년 우울과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 기질 및 성격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5권 제1호, pp. 221-236.
- 김원경·권희경·전제아(2006). 부모양육행동, 아동의 우울 및 자기효능감과 아동의 문제해결력 간의 구조모델. *아동학회지*, 제27권 제3호, pp. 67-79.
- 남상인·구자경(1998). 발달과제와 문제. *청소년대화의 광장* 편, *청소년 문제론*. pp. 109-174. 서울: 청소년대화의광장.
- 이송이(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부모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4권 제2호, pp. 61-71.
- 정소희(2007). 사회경제적 지위, 부부갈등, 부모양육행동, 자아통제력이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 *사회복지연구*, 제32권, pp. 5-34.
- 조성진·전홍진·김무진·김장규·김선욱·류인균·조맹제(2001). 한국 일 도시지역 청소년의 우울 증상 유병률과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40권 제4호, pp. 627-639.
- 한국청소년개발원(2006). *한국 청소년 패널 조사(KYPS) IV-조사개요 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홍세희(2007). *구조 방정식 모형의 이론과 응용*.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 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19권 제1호, pp. 161-177.
- Abraham, K. G. and Christopherson, V. A.(1984). Competence among rural middle school children: Parental antecedents and relation to locus of control.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Vol. 4, pp. 343-351.
- Avakame, E. F.(1998).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iolence, self-control, and conjugal violence: A comparative analysis of physical violence and psychological aggression. *Violence and Victims*, Vol. 13, pp. 301-316.

- Bandura, A.(1978). The self system in reciprocal determinism. *American Psychologist*, Vol. 33, pp. 344-358.
- Barber, B. K., and Harmon, E. L.(2002).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 K. Barber(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rber, B. K.(2002).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rber, B. K., Olsen, J. A.(1997). Socialization in context: Connection, regulation, and autonomy in the family, school, and neighborhood, and with peer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Vol. 12 No. 2, pp. 287-315.
- Barber, B. K., Olsen, J. E., and Shagle, S. C.(1994).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Vol. 65, pp. 1120-1136.
- Bean, R. A., Bush, K. R., McKenry, P. C., and Wilson, S. M.(2003). The impact of parental support, behavioral control, and psychological control on the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esteem of Afric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Vol. 18 No.5, pp. 523-541.
- Baumeister, R. F., Heatherton, T. F., and Tice, D. M.(1994). *Losing control: How and why people fail at self-regulation*,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Baumrind, D.(1996). The discipline controversy revisited. *Family Relations*, Vol. 4 No. 4, pp. 405-414.
- Baumrind, D.(2005).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and adolescent autonomy.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Vol. 2005, No. 108(July 2005), pp. 61-69.
- Brown, B. B., Mounts, N., Lamborn, S. D., & Steinberg, L.(1993). Parenting practices and peer group affiliation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Vol. 64, pp. 467-482.

- Browne, M. W., and Cudeck, R.(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and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Demo, D. H., Small, S. A., and Savin-Williams, R. C.(1987). Family relations and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9, pp. 705-715.
- Fabes, R. A, Eisenberg, N., Jones, S., Smith, M., Guthrie, I., Poulin, R., Shepard, S., and Friedman, J.(1999). Regulation, emotionality, and preschoolers' socially competent peer interactions. *Child Development*, Vol. 70, pp. 432-442.
- Finkenauer, C., Engels, R. C. M. E., and Baumeister, R. F.(2005). Parenting behaviour and adolescent behavioural and emotional problems: The role of self-control.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Vol. 29 No.1, pp. 58-69.
- Garber, J., Robinson, N. S., and Valentiner, D.(1997). The relations between parenting and adolescent depression: Self-worth as a mediator.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Vol. 12, pp. 12-33.
- Gottfredson, M. R. and Hirsch, T.(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T: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amzow, R. H, Sedikides, C., Panter, A. T., and Insko, C. A.(2000). Aspects of self-regulation and self-structure as predictors of perceived emotional distr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26, pp.188-205.
- Gray, M. R., and Steinberg, L.(1999). Unpacking authoritative parenting: Reassessing a multi-dimensional construc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61, pp. 574-587.
- Hagborg, W. J., Masella, G., Palladino, P., and Shepardson, J.(1991). A follow-up study of high school students with a history of grade retention. *Psychology in the Schools*, Vol. 28, pp. 310-317.
- Hamf, A. L. (2004). *Examining interpersonal and cognitive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atology: A comparison of clinically depressed,*

- subsyndromal, and normal control yout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Hammen, C., and Zupan, B. (1984). Self-schemas, depression, and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in childre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Vol. 37, pp. 598-608.
- Harter, S., and Pike, R.(1984) The pictorial scale of 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l acceptance for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Vol. 55, pp. 1969-1982.
- Harter, S.(1999).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A developmental perspectiv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Herman, M. R., Dornbusch, S. M., Herron, M. C., and Herting, J. R.(1997). The influence of family behavioral control, connection, and psychological autonomy on six measures of adolescent functioning.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Vol. 12, pp. 34-67.
- Jacobson, K. C., and Crockett, L. J.(2000). Parental monitoring and adolescent adjustment: An ec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Vol. 10 No. 1, pp. 65-97.
- Kandel, D. B., and Davies, M.(1986). Adult sequelae of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Vol. 43, pp. 255-262.
- Kremen, A. M., and Block, J. (1998). The roots of ego-control in young adulthood: Links with parenting in early child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5, pp. 1062-1075.
- Lamborn, S. D. and Felbab, A. J.(2003). Applying ethnic equivalence and cultural values models to African American teen's perceptions of parents. *Journal of Adolescence*, Vol. 26, pp. 605-622.
- Lee, S. M., Daniels, M. H., and Kissinger, D. B.(2006). Parental influences on adolescent adjustment: Parenting styles versus parenting practices. *The Family Journal: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and Families*, Vol.14 No. 3, pp. 253-259.

- Lehman, L.(1985). The relationship of depression to other DSM-III Axis I disorders. In E. E. Beckham and Leber, W. R.(Eds.), *Handbook of depression* (pp.669-699). Homewood, IL: Dorsey Press.
- MaCallum, R. C., Browne, M. W., and Sugawara, H. M.(1996). Power analysis and determination of sample size for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Psychological Methods, Vol. 1*, pp. 130-149.
- Maccoby, E. E. and Martin, J. A.(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E. M. Hetherington(Ed.) and P. H. Mussen(se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New York: Wiley.
- Muraven, M., Baumeister, R. F., and Tice, D.(1999). Longitudinal improvement of self-regulation through practice: Building self-control strength through repeated exercise.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139*, pp. 446-457.
- Ohannessian, C. M., Lerner, R. M., Lerner, J. V., and von Eye, A(1999). Does self-competence predict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depression and anxiety? *Journal of Adolescence, Vol. 22*, pp. 397-411.
- Papini, D. R., and Roggman, L. A.(1992). Adolescent perceived attachment to parents in relation to competence, depression, and anxiety: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Vol. 12*, pp. 420-440.
- Parker, G.(1983). *Parental overprotection: A risk factor in psychosocial development*. Sydney: Grune & Stratton.
- Patterson, G. R., Reid, J., & Dishion, T. J.(1992). *Antisocial boys*. Eugene, OR: Catilia.
- Peterson, G. W. and Rollins, B. C.(1987). Parent-child socialization. In M. B. Sussman and Steinmetz, S. K.(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pp.471-505). New York: Plenum.
- Pettit, G. S., Laird, R. D., Dodge, K. A., Bates, J. E., and Criss, M. M.(2001). Antecedents and behavior-problem outcomes of parental monitoring and psychological control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Vol. 72 No.*

- 2, pp. 583-598.
- Sawyer, M. G., Sarris, A., Baghurst, P. A., Cornish, C. A., & Lakocy, R. S. (1990). The prevalence of emotional and behavior disorders and patterns of service utilizat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Vol. 24, pp. 323-330.
- Schonert-Reichl, K. A., & Muller, J. R. (1996). Correlates of help-seek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5, pp. 705-732.
- Schumacker, R. E. and Lomax, R. G.(2004). *A beginner's guide to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2nd edition*. Lond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teinberg, L.(1990). Interdependence in the family: Autonomy, conflict, and harmony in th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In S. S. Feldman & G. R. Elliot(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pp. 255-276). Cambridge, MA: Havard University Press.
- Tangney, J. P., Baumeister, R. F., and Boone, A. L.(2004). High self-control predicts good adjustment, less pathology, better grades, and interpersonal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Vol. 72, pp. 271-324.
- Van-Boxtel, H. W. and Monks, F. J.(1992). General, social, and academic self-concepts of gifted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1, pp. 169-186.
- West, S. G., Finch, J. F. and Curran, P. J.(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oyle(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pp.56-75). Newbury Park, CA: Sage.
- Wigfield, A. and Eccles, J. S.(1994). Children's competence beliefs, achievement values, and general self-esteem: Change across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Vol. 14, pp. 107-138.

ABSTRACT

Perceived Parental Support, Behavioral Control,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 Depression: The Role of Self-Control and Self-Competence as Mediators

Choi, Jung Ah* · Lee, Hye E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support, behavioral control, and psychological control on adolescent depression.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developed and empirically tested a theoretical model where each of the above listed parental behaviors were hypothesized to affect depression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self-control and self-competence. The data from 3,125 adolescents, taken from the 2005 Korea Youth Panel was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was used for estimation purpos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ed that behavioral control was found to directly effect depression as well as indirectly effecting it through self-control and self-competence. In addition, perceived parental support had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depression through self-competence while psychological control was found to directly effect depression directly and indirectly effect it through self-control. These results imply that improving self-control and self-competence is an effective way for parents to help their children avoid depression during adolescence. Given that all the three dimensions of parental behaviors have a direct or indirect impact upon depression, it is recommended that parent education programs for effective parenting are developed.

* Yonsei University

Key Words : adolescent depression, parental behavior, perceived parental support, behavioral control, psychological control, self-control, self-competence, structural equation model

투고일 : 12월 16일, 심사일 : 2월 2일, 심사완료일 : 2월 20일